Daishin 증권

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 Morning Meeting Brief

##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 [Global Daishin View] 2026 년 4 월 1 주차

- 미국 · 이스라엘–이란 전쟁, 4.9일(미국 잠정 종전일) · 5.14~15일(트럼프 중국 방문) 일정 감안 시 선 합의–후 논의 방식 진행 가능성
- 멕시코 중앙은행, 금리 인하. 지정학 위험에 선제적 대응. ARM 홀딩스, 신규 AI칩 출시. 인비테이션 홈즈, 규제 리스크 불구 저평가
- 이번 주 해외 투자 포커스: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Mexico ETF(EWW), [미국주식] ARM 홀딩스(ARM), [글로벌리츠] 인비테이션 홈즈(INVH)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미국주식 서영재, 글로벌리츠 김다은

## Strategy

### [4 월 증시 전망 및 투자전략] 기승전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반전 모멘텀? 가려진 정책/실적 모멘텀에 주목할 때

-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해소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빠른 정상화 또한 가능
- 매크로 환경이나 주요 산업들의 업황, 실적, 정책동력은 견고하며 오히려 더 강화
- 업종 실적대비 저평가 영역 진입. 주도주/소외주 매집 전략 강화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Strategy

### [퀀틴전시 플랜] 매파적 연준과 중동 리스크, 트럼프 TACO 패턴에 거는 희망

- 소비심리 후퇴와 연준의 매파적 발언, 스태그플레이션 경계 확대
- 확전 우려 확대되었음에도 TACO 기대에 개인, 기관 저가매수 유입
- 정책 기대와 고유가 수혜 부각, 외국인 대형주 매물 출회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 Quant

### [4 월 퀀트 전망] 매크로 불안, 이익과 정책 관련 팩터에 무게

- 멀티 팩터 전략과 선호 업종, 종목
-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도 견고한 이익에 집중할 시점
- 정책의 방향은 저평가 정상화와 주주환원 강화

권순호. soonho.kwon@daishin.com

#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 2026년 4월 1주차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미국주식 서영재
글로벌리츠 김다은

- 전쟁, 4.9일 · 5.14~15일 일정 감안 시 선 합의-후 논의 방식 진행 가능성
- ARM 홀딩스, 신규 AI칩 출시. 인비테이션 홈즈, 규제 리스크 불구 저평가
- 주식 포커스: iShares MSCI Mexico ETF(EWW), ARM 홀딩스(ARM), 인비테이션 홈즈(INVH)

**[글로벌전략] 4.9일 미국 잠정적 종전일, 5.14~15일 트럼프 중국 방문. 동 일정 감안 시, 중동 긴장 완화 기대**

가까이는 4.9일 미국의 종전 잠정일, 5.14~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 확정이 의미 있는 점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전까지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미국이 제시한 잠정적 종전일인 4.9일까지는 미국과 이란이 포괄적 합의에 이르고, 트럼프 중국 방문일인 5.14일 전까지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선 합의-후 논의 방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동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선호심리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것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Mexico ETF(EWW): 인플레이션 우려 속 금리 인하, 지정학적 불확실성 선제 대응**

3.2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25bp 인하한 6.75%로 발표. 2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4.02%(YoY 이하)로 전월(1월) 3.79%를 상회. 시장 예상치도 동결이었으나 5인의 금융위원 중 3인이 인하, 2인이 동결을 주장하며 인하 진행. 멕시코 중앙은행은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선제적인 대처를 진행했다고 언급. 다만 멕시코 통계청(INEGI) 3월 상반기 물가 상승률은 4.63%로 추가 인하는 부담. 18일 브라질에 이어 에너지 순수출 구조를 가진 남미 주요국 금리 인하가 지속되며 증시 하단을 지지할 것

**[미국주식] ARM 홀딩스(ARM): 신규 AI 칩 출시, 2031년 150억 달러 이상 매출 달성 전망**

ARM 홀딩스는 반도체 설계 IP를 라이선스하고, 로열티 매출을 수취하던 사업 구조에서 직접 CPU를 설계하는 사업 구조로 확장하겠다고 발표. 최근 자사의 첫 데이터센터용 CPU인 'AGI CPU'를 공개. CEO는 새로운 칩이 2031년까지 150억 달러의 매출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메타를 필두로 오픈AI, 클라우드플레어, SAP 등을 초기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CFO는 새로운 칩을 약 50%의 매출 총이익률에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

**[글로벌리츠] 인비테이션 홈즈(INVH): 미국 단독주택 규제 리스크와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회**

3월 중순, 21세기 주택법 (기관 주택매입 제한 및 7년 내 매각의무) 상원통과 → 규제가 논의 되던 연초부터 단독주택 리츠 주가하락. 개인 매수 기회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개발위축으로 기존 자산 매매가, 임대료 인상 역효과 초래가능. 단순 매입 성장이 제한됨에 따라 리츠들은 개발 등 사업 영역 확대와 체질 개선 필연적 → INVH는 BTR 개발사(ResiBuilt) 인수로 선제적 대응 중. 현 주가는 12MF P/FFO 12배로 과거 평균 대비 30% 할인 → 규제 리스크를 감안해도 의미 있는 저평가 국면. 신규 임대료 반등 및 금리 안정화 등 촉매 확인 시 탄력적 반등 기대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Quant Strategist 권순호
soonho.kwon@daishin.com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4월 증시 전망 및 투자전략

# 기승전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반전 모멘텀? 가려진 정책/실적 모멘텀에 주목할 때

-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해소 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빠른 정상화 또한 가능
- 매크로 환경이나 주요 산업들의 업황, 실적, 정책동력은 견고하며 오히려 더 강화
- 업종 실적대비 저평가 영역 진입. 주도주/소외주 매집 전략 강화

##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해소 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빠른 정상화 또한 가능

글로벌 금융시장 관련 모든 이슈를 지정학적 리스크가 흡수하는 상황. 금융시장 흐름 파악, 전망하는데 있어 기승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리

**반대로 해석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해소 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빠른 정상화 또한 가능하다는 의미**. 리스크 확대/확산보다 완화/해소 가능성에 무게를 둘 시점

다만, 예상보다 길어지는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 무력 충돌로 인해 2차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임계치에 도달하거나 넘나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로 인한 불안심리 유입, 수급 변동성 확대 불가피. 1차 충격을 손 쓸 수 없이 당했다면, **2차 변동성 확대는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

KOSPI는 **1) 고점대비 20% 급락**. 과거 경기 부진,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돌발 악재 발생시 가격 조정 수준, 경기, 업황/실적 불확실성 선반영

**2) KOSPI 12개월 선행 PER 8.18배**. 장 중 저점 기준 8배 초반으로 Deep Value 국면 진입. 선행 PER 8배 이하는 경기/실적 불확실성이 증폭되었던 국면

3) 120일, 200일선 이격도 또한 극심한 과열권에서 벗어나며 빠르게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국면 전개**

## 매크로 환경이나 주요 산업들의 업황, 실적, 정책동력은 견고하며 오히려 강화

국내 정책/실적 모멘텀은 강화. **1) KOSPI 12개월 선행 EPS 3월 27일 664.9p로 레벨업(2월말 611p)**. 프리어닝 시즌이 앞당겨지며 실적 상향조정 진행 중

**2 주요 기업들,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소각 공시 러쉬**. 25년 378건, 26년 3월 27일까지 205건 의 자사주 소각 공시. 소각 규모 25년 연간 수준의 70에 달함

3) 중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Risk Off 고점권 도달, VIX 30% 상회

4) 외국인의 KOSPI 시장과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도 Climax 권역 진입. 조만간 **Risk On 시그널 전환,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개선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 외국인 매도 강도 완화 및 매수 전환 가능성도 확대

## 업종 실적대비 저평가 영역 진입. 주도주/소외주 매집 전략 강화

실제로 실적대비 저평가 & 낙폭과대 업종에 **반도체, 인터넷, 건강관리, 운송, 철강, 조선, 화학, 비철/목재, 디스플레이, 미디어/교육, 유틸리티** 포진

KOSPI 레벨업, 사상 최고치 행진을 주도했던 반도체, 조선, 유틸리티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인터넷, 건강관리, 디스플레이, 미디어/교육이 자리하고 있음

KOSPI 2차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는 상대적 안정상 강화가 가능하고, 분위기 반전 시 실적 호조 + 저평가 매력에 근거한 탄력적인 상승 예상

**26년 연간 & 상반기 이익 기여도 개선, 이익 모멘텀 견고 + 낙폭과대 =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 자동차, 방산, 조선, 기계, 화장품/의류, 엔터**

Strategy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퀀틴전시 플랜

# 매파적 연준과 중동 리스크, 트럼프 TACO 패턴에 거는 희망

- 소비심리 후퇴와 연준의 매파적 발언, 스태그플레이션 경계 확대
- 확전 우려 확대되었음에도 TACO 기대에 개인, 기관 저가매수 유입
- 정책 기대와 고유가 수혜 부각, 외국인 대형주 매물 출회

## 소비심리 후퇴와 연준의 매파적 발언, 스태그플레이션 경계 확대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53.3p로 예상치 55.5p와 이전치 56.6p를 모두 하회. 이는 25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 시장 변동성에 따라 주식 자산 보유층에 심리가 크게 하락했다는 설명. 미시간대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3.8%로 집계되며, 25년 4월(해방의 날) 이후 가장 큰 상승폭 기록

애나 폴슨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8% 수준이라고 발언하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발언

이는 소비자심리가 후퇴하는 가운데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지속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리인하가 제한되는 환경을 시사.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해 Risk-Off 심리 확대

## 확전 우려 확대되었음에도 TACO 기대에 개인, 기관 저가매수 유입

중동 내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이란 전쟁 장기화 및 확전 우려가 확산. 주말 사이 예멘 후티는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이란 전쟁 참전 공식화

주말 사이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다 선회. 이란의 우호국인 중국의 선박이었음에도 예상보다 강경한 이란의 태도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 고조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적인 태도는 지속되는 중. 이란이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목 계획에 대부분 동의했다고 전했고, 30일부터 유조선 20척의 통과가 허용될 것이라고도 밝힘. 동시에 미국이 이란 원유 통제와 하르그 섬 점령 가능성도 시사

다만 지난주 트럼프 TACO는 미국 증시 개장 전 주가와 유가 변동성을 의식한 완화적 발언에서 비롯. 이번에도 지난 금요일 미 증시 급락으로 월요일 유사한 완화적 발언 기대가 형성. 개인·기관 저가매수세가 유입. 미국 증시 선물도 상승 중

## 정책 기대와 고유가 수혜 부각, 외국인 대형주 매물 출회

국내 전기차 판매량 급등과 확대 전망, 이재명 대통령 신재생에너지 촉구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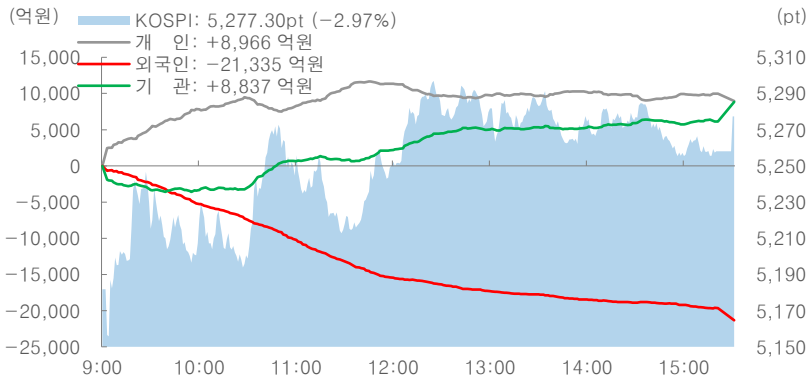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3.9%), 삼성SDI(+1.7%), 포스코퓨처엠(+2.6%) 등

**친환경 에너지**: SK이터닉스(+10.5%), OCI홀딩스(+6.4%), 씨에스윈드(+4.8%) 등

외국인 8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며 업종 가리지 않고 대형주 중심 순매도

**대형주**: SK하이닉스(-5.3%), 현대차(-5.2%), LIG넥스원(-6.7%) 등

###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Quant

Quant Strategist 권순호
soonho.kwon@daishin.com

4월 퀀트 전망

# 매크로 불안, 이익과 정책 관련 팩터에 무게

- 멀티 팩터 전략과 선호 업종, 종목
-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도 견고한 이익에 집중할 시점
- 정책의 방향은 저평가 정상화와 주주환원 강화

## 멀티 팩터 전략과 선호 업종, 종목

이익 모멘텀, 단기 낙폭과대 팩터와 함께 저평가,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 중심에 팩터 가중치를 더함. 정책적인 방향이 저평가 해소, 일반주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 점진적인 실효성이 나타나는 구간이라 판단 하기 때문

이에 더해 알파를 창출하는 주체의 수급 요인을 환산하여 추가 팩터 가중치로 선정. 주요 업종으로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증권, 은행, 주요 종목으로 iM금융지주, 기업은행, 삼성전자, 현대백화점 등 20개 기업을 제시

##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도 견고한 이익에 집중할 시점

3월 시장은 중동 지정학 갈등, 매크로 둔화 우려,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반영되며 투자심리가 크게 약화된 구간으로 판단. 다만 현재 심리 수준은 과거 충격 국면과 유사한 저점권에 근접해 있어, 추가 하락에만 베팅하기보다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실적 안정성과 향후 불확실성 완화 시 반등 여력이 높은 팩터에 집중할 필요

이에 따라 4월 전략은 단기 충격으로 눌렸지만 장기 펀더멘털 훼손이 제한적인 종목, 그리고 공포 국면에서도 이익 추정 상향이 이어지는 기업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

## 정책의 방향은 저평가 정상화와 주주환원 강화

정책 측면에서는 상법 개정, 중복상장 해소, 저PBR 기업에 대한 가치제고 요구,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흐름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음. 단순한 테마성 접근보다 저PBR, 고배당, 고수익성 기업에 대한 구조적 재평가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

실제로 장기간 저평가 상태에 머물렀던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최근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책의 본격 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가능성도 확인. 저평가 정상화와 주주환원 확대 수혜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에 관심을 둘 필요

##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